

주일의말씀

“나는 군종신부다!”



박종혁 사도요한 신부
군종교구 백두산성당 주임

제가 군종신부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최우선으로 사목하자!”는 것입니다. 첫 임지인 백두산 성당에 부임하여 군종병에게 “매주 한 번씩 차례대로 격오지 위문을 다니자.”라고 말했더니, 군종병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신부님, 매주 그렇게 위문을 다니려면 지금 우리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재정이 무슨 상관이지? 그냥 병사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코파이 하나에 함박웃음을 짓는 병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면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임 신부가 성탄절 위문 후 한 병사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없이 내리는 눈이 완연한 겨울의 중턱을 알리는 지금, 크리스마스에 내리던 함박눈만큼이나 커다란 사랑에 감사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에 근무하는 경계병 상병 000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훈련소에 입소한 뒤 달력 한 권을 다 돌아내고 맞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었습니다. 휴일도, 종교행사도 없는 이곳에서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냥 ‘지긋지긋한 눈을 또 치워야 하는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끔찍한 추위에 전투복을 여미는 날이었고, 어깨에 짊어진 총과 받아온 실탄과 수류탄의 무게에 짓눌린 채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철책너머의 북한을 외로이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불쌍했는지 신부님께서 양손 한가득 크

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저희 소초로 위문을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부대 성당에서 만든 거겠지’ 하며 한숨으로 받았는데, 이게 웬걸 내용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란 봉지 가득 들어있는 라면에 과자에 물티슈에 립글로즈, 핸드크림까지... 민간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학생들의 성의 없는 편지가 전부였는데, 군인을 위해 사느라 고생하시고 싸느라 고생하셨을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선물을 준비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또 그런 곳이 성당이라니... 천주교 신자로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생활관 선·후임들에게 “천주교가 이런 데야.”하며 제가 쿨대를 얼마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봉지에 프린트되어 있는 ‘주님사랑♥군인사랑♥’이라는 문구처럼 저희를 잊지 않고 사랑해주시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그 커다란 선물은 저희에게 자부심과 사랑을 주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12월 25일을 기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또 저희 부대원들도 ‘누군가는 이런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맘 깊이 새기고 다시금 근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소작인인 저희 군종신부들은 열심히 소출을 거두어 주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군대라는 터전을 잘 가꾸어 소출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군종신부다!” 라는, 저의 정체성이 아닐는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군인들을 위해, 저희 군종신부들과 함께 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말씀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마태 21:41 참조)

제1독서 : 이사 5,1-7 제2독서 : 필리 4,6-9 복음 : 마태 21,33-43.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8)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방위의 임무에 충실한 우리 장병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1년 군선교 60주년을 맞아 “감사와 평화의 삶”이라는 사목 목표 아래, 군선교 활동에 많고도 귀중한 결실들을 맺게 해 주신 하느님과 전국의 신자 여러분, 그리고 군종후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선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군종교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들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6·25전쟁 중인 1951년 4월에 군종 활동을 시작한 11명의 사제가 이제는 94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9개 교구에 산재된 군종후원회 회원들은 6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386,180명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93개의 본당에서 군인 교우들을 사목하고 있습니다. 군선교 60년 동안 저희가 체험한 이 벅차오르는 감사는 성령께서 보내신 총명한 은총이었습니다. 비극의 6·25 전쟁과 더불어 시작된 군선교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딱딱한 길, 돌밭, 가시덤불 속과 같은 신앙의 불모지인 군에서 오묘하게 싹을 틔우고 가지들을 뻗어 수천, 수만 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군을 “선교의 황금어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군종교구는 이 감사의 정신 안에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선교를 향한 열정”이라는 교구의 존재 이유를 굳건히 살아가며,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군선교의 장(場)을 열어갈 것입니다. 군종교구는 2011년을 “감사의 해”로 정하여 하느님과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고자 하며, 더 나아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라는 말씀에 따라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군종교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2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 수 일(F. 하비에르) 주교

기도도 많이 많이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7주일

입당성가

35 나는 포도나무요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파견성가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영성의 향기

:: 유혹의 여러 모습

유혹의 한 형태인 의심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이것을 금하셨을까? 하느님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진정 원하시는가? 유혹은 또 속임수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낙원에서 뱀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기는커녕 하느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의 또 다른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하느님의 뜻도 알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기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나오고,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의심, 속임수, 불순종 등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야고 1,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원치 않고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는 한, 유혹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모든 이들의 종이 되십시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에 대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함이 없이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 만인에게 예속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듯 자기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건 수하 사람이건 관계없이 상호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수하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고 주인 되는 사람은 형제들을 기꺼이 완덕으로 이끌 것입니다. 서로 공경심을 보이는 데서 앞지른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이미 천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4(화)은 故 윤광제(다윗) 신부 1주기입니다.
1주기 미사: 10.4(화) 10:00, 성직자묘지

모임/행사

교구 100주년·한티순교성지 조성 20주년
감사 미사와 음악제

일시: 10.9(일) 15:00, 한티순교성지
주례: 조항길 대구교님과 교구 사제단
미사에 이어 기념 음악제가 있습니다.

교구 100주년 기념

한국가톨릭 성직자·수도자 미술전(美術展)

기간: 10.11(화)~16(일), 문의: (010)3588-5252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전관(대백프라자 10층)
주최: 천주교대구교구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주관: 주노아트갤러리, 홀리아트갤러리

2011년 선택인의 날

일시: 10.16(일)14:00,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대상: 대구선택을 수강한 모든 분
문의: 대구선택 카페

<http://cafe.daum.net/daeguchoice>

대구선택 100차 기념미사도 함께 봉헌됩니다.

성소/피정

2박3일 치유피정

일시: 10.14(금) 18:00~16:00(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소식제공)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 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043)213-9103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0.15(토) 11:00~16(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내적, 외적, 영적치유를 원하는 분
인원: 100명 선착순(사전접수),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myungkkot@hanmail.net)

교육/모집

시편성가연수감정선 수녀, 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일시: 10.2(일)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제30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일시: 10.10(월)~14(금) 13:30~17:30
장소: 교구청별관 대회의실
문의: 사무국, 250-3056, 마감: 10.3(일)

남구 보금자리 장애인시설 입주자 모집

기간: 10월~정원 충원 시
장소: 대구시 남구소재(그룹홈 형태 운영)
주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상: 만18세 이상1~3급 지적장애(20명)
문의: 710-7030~2, 상담 후 최종결정

에니어그램 2단계교육

일시: 10.14(금)~15(토)
자격: 1단계 교육 수강하신 분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문의: 253-1313

통 큰 선교로 통 큰 결실을!

제45기 선교대학

대상: 선교에 애정을 가진 모든 분
일시: 10.15(토) 10:00~16:00, 계산문화관
신청비: 1만원(교재, 식대), 지도: 이관석 신부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일시: 10.17(월)~21(금) 13:30~17:30(5일)
장소: 의대마리아관 1층 종합강의실
접수: 10.12(수)까지(65세 이하), 수강료:2만 원
문의: (011)503-1835 (대구:248-13-006980 성미순)

조이플스테이(26차~30차)

일시: 10.2(일)~3(월)/8(토)~9(일)/15(토)~16(일)
주관: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미혼여성 누구나

회비: 2만 원, 미사 준비

신청: (010)2649-2045

영상포럼 지도자 교육 (6주 코스)

기간: 10.19(매주 수), 6주
장소: 대구 바오로딸 2층 14:00~17:00
회비: 10만 원(국민 8026795-100667 재 성바오로)
문의: 425-5185 / (010)7449-1117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5기 모집

원서접수: 10.14(금)~ , 펜실베니아 대학제휴
경북유일180시간, 영어회화전담강사지원가능
미국유학 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 기회, 신부님 추천장학
전화: 526-0111(<http://tesol.cu.ac.kr>)

제3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초·중·고: 2012.1.7(토)~29(일)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
대·일반: 2012.1.8(일)~2.19(일)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직인채용

교구청 사제관 주방직인 채용

자격: 요리에 자신 있는 52세 이하 신자
마감: 10.6(목)까지, 문의: 250-3011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후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미경(수산나), 황진욱, 정점순

미사	일시	장소
말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5대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오전 11시	원평성당

미사	일시	장소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3일(월) 오후 7시30분	꾸르실료 교육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신자 및 미사	10월 3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지의집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0월 6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오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ui.com
근본치료
· 잦은감기(열, 비염, 편식, 중이염)
· 틱, ADHD
· 난치성 이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 식욕부진, 성장, 아토피
원리학 박사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 592-1275, 593-1275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서정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 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익현(안드레아)

수맥 흡(돌)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범어역6번출구)

사회복지법인 서정희 대구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이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산도)신부